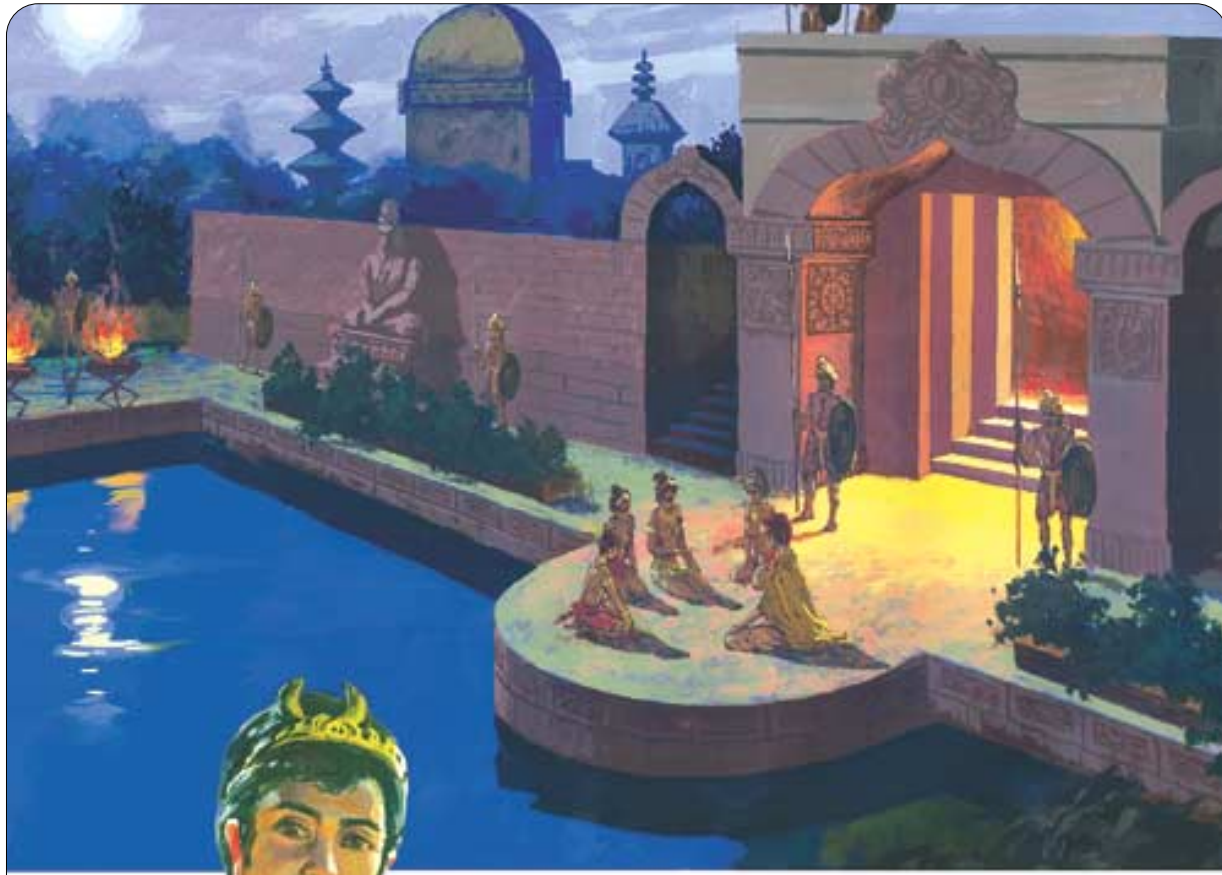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부처님

제36화 샤카족 왕족의 귀의



“내 말이 알아듣기 힘들겠지만 마음을 모아서 이해하도록 노력해 보라. 우선 이 세상(세)엔 처음부터 영원한 있음(有)도 없고 없음도 없다. 처음부터 아무 것도 없었다면 있는 것이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텅 빈 상태(空, Sunya)라 하지만 그 수나(空)속에는 무수한 인자(원)들이 있어 그들이 서로 인연을 맺을 때 형상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색(色, Rupa)이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색(무)파(色)로 불려지는 물상들은 예외 없이 운동하는 속성을 지니 그 인자들의 인연(결합)이 흩어지면 물상도 흩어지며 다시 수나(空)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나 민족이나 한 인간의 흥망성쇠가 일어난다. 색(色)의 탄생으로 생명을 얻고 삶을 영위하다가 색이 인연을 다하면 다시 공(空)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만남도, 헤어짐도, 또는 허공을 뿜는 모든 형태까지도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의 모태이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깨어져 조각들로, 그리고 모래로 변하다가 흩어지고 먼지가 되고 다시 먼지가 부셔서 인자가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아 버님, 아니 붓다의 말씀이 그대로 사실이라면 결국 하늘의 신(神)들도 없다는 뜻이 아니옵니까? 모든 것이 다 수나(空)로부터 임태한 루파(色)라 하면 결국 우리들이 죽은 후에도 갈 곳은 수나(Sunya) 뿐이니 죽은 후에 갈 곳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살아생전 공덕을 쌓으라 하십니까. 또 신들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며, 또 남도 없고(살)도 없다면 무슨 희망으로 살아가옵니까?”

“네가 아직 어린 나이에 그와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고력이 있었더라면 기쁘고 기쁘다. 너는 나의 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그 생각하는 경지가 깊고 높은 차원에 도달해 있으므로 이제 곧 나를 따라 출가해도 좋을 것이다.

네가 알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은 앞으로 출가수행을 통하여 하나하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니, 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에 열중하도록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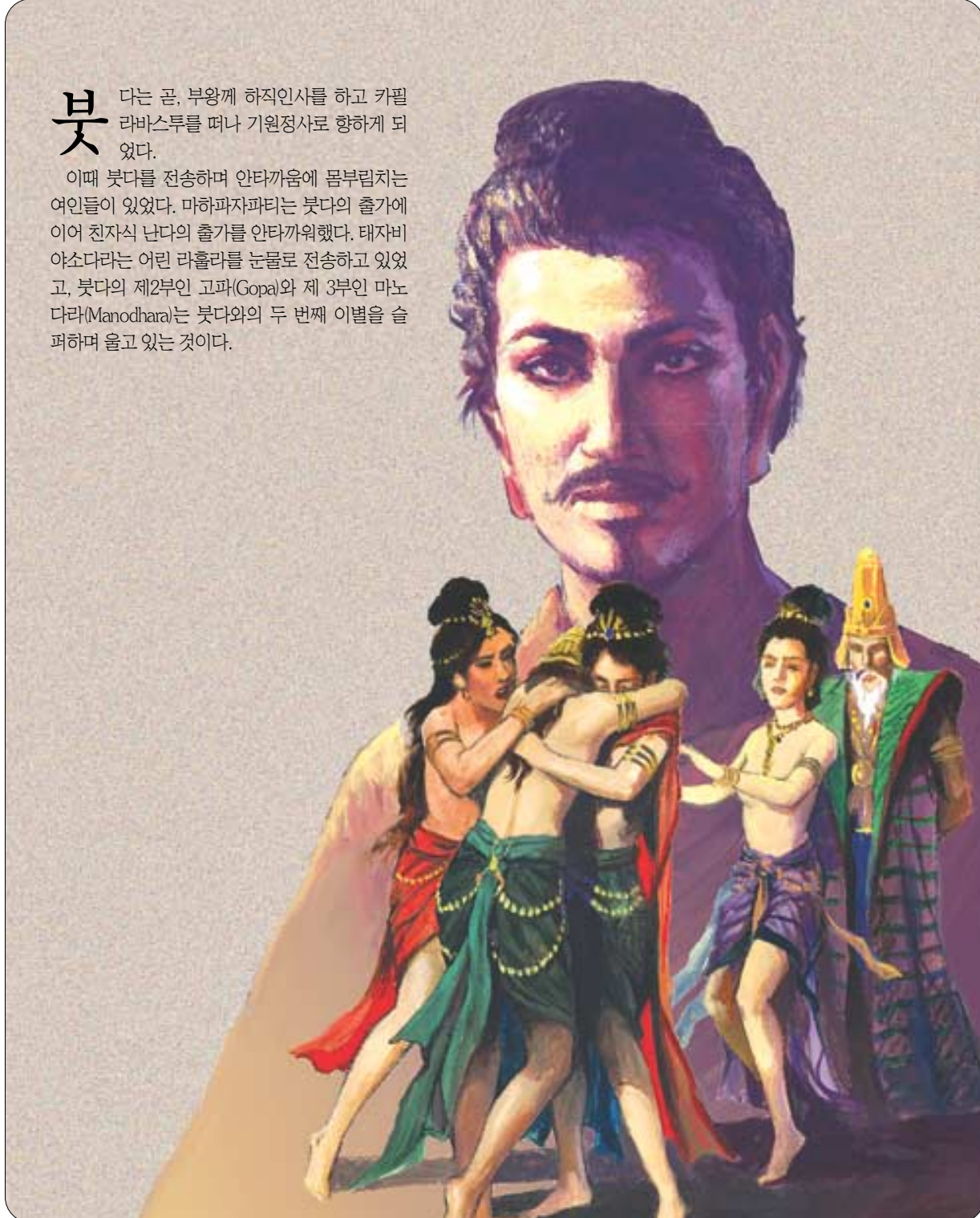
“아버님께서서... 아니 붓다께서 제 나 이제 겨우 열 살에 출가를 허락 하옵시니, 소자 더할 수 없는 무상의 영광입니다.”



붓 다는 카필라바스투성에 머무는 동안 법(法, Dhamma)을 설하면서 그동안 샤카족을 지배해 왔던 브라만교의 6파, 즉 니야야(Nyaya), 베세시카(Vaisesika), 승가(Samkhya), 베단타(Vedanta), 요가(Yoga), 미만차(Mimansa) 등의 종교철학을 송두리째 뽑아 뒤엎고 그 교리의 모순을 설명하니,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커다란 동요가 일어났다.

과 영화를 버리고 불교에 귀의(歸依)하여 왔다. 그 중에는 붓다의 배다른 동생으로 다음 왕위를 이어받도록 관정을 받는 난다(難陀, Nanda)가 있었다. 이미 붓다가 출가하여 그의 동생 난다에게 왕위계승권을 주고 그 태자비를 맞이하기 위하여 화려한 결혼식마저 준비 되고 있던 중이었다. 그러나 난다는 붓다의 법륜에 감동하고 결국 붓다를 따라 출가하고 만 것이다. 이리하여 쉰도다나왕은 카필라바스투의 왕위 계승권자를 붓다와 리후라, 그리고 난다까지 모두 잃게 되었다. 쉰도다나왕은 붓다에게 왕국의 정래문제를 의논하니, 붓다는 이후 부모의 허락 없는 미성년자의 귀의를 금하게 되었다.

이윽고 붓다의 법(Dhamma)의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나타나더니 수많은 귀족들이 벼슬



붓 다는 곧, 부왕께 하직인사를 하고 카필라바스투를 떠나 기원정사로 향하게 되었다.

이때 붓다를 전송하며 안타까움에 몸부림치는 여인들이 있었다. 마하파자파티는 붓다의 출가에 이어 친자식 난다의 출가를 안타까워했다. 태자비아소다라는 어린 리후라를 눈물로 전송하고 있었고, 붓다의 제2부인 고파(Gopa)와 제 3부인 마노다라(Manodhara)는 붓다와의 두 번째 이별을 슬퍼하며 울고 있는 것이다.

샤 카족의 젊고 유능한 청년들 중 대부분이 붓다의 가르침을 얻기 위하여 붓가를 따라 출가했다.

계신 니그로다 동산으로 찾아왔다. 그러나 이미 그녀들의 출가 요청을 세 번씩이나 거절하고 난 후였다.

붓다가 기원정사에 머무는 동안에도 지역적으로 가까운 카필라바스투의 사람들은 줄줄이 부처님의 교단으로 출가했다. 이들 중에는 붓다와 사촌 형제 관계인 아니루타(Anuruddha), 그리고 후일 카필라바스투의 왕위에까지 올랐던 바르다카를 비롯하여 부처님의 제1부인 아소다라의 동생들인 난다(難陀, Nanda)와 끝까지 교단을 파괴하려고 공작했던 테바닷타(Tevadatta, 提婆達多), 또 미남으로 이름난 아난다(阿難陀, Ananda) 등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제 나름대로 불교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된다.

이번에는 그녀들의 단호한 결심을 과시하기 위하여 전부 다 머리를 깎고 스스로 승복을 만들어 입은 후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어온 것이었다. 그녀들은 모두 발이 터져 부었고 얼굴은 고통의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여성을 가장 멀리하고 금욕의 생활을 수도 생활의 기본으로 삼고 있던 수도 장소에 여성들이 기어코 들어오겠다고 애원하니 붓다는 고민에 빠지고 말았다. 이것은 여성의 능력 그 자체가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출현으로 인하여 승단의 모든 질서가 깨질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었다.

카필라바스투에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가 일어났다. 쉰도다나의 정비(正妃)였으며 부처님의 양모인 마하파자파티는 붓다의 태자시절 정비였던 아소다라와 함께 남편의 출가로 생과부가 된 수많은 여성들을 인솔하고 부처님이

출가여성(비구니, bhikkhuni)들을 데리고는 지금까지 자유롭게 깊은 숲속에서 수행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선정에 들러는 신심이 약한 비구들이 그 유혹에 흔들리게 되어 그만큼 승단을 이끄는 데 어려움이 많아질 것이었다.

